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 연구

손봉희¹ · 김영미² · 전인경³

거제대학 간호과 초빙교수¹, 한국남부발전 (주)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건강관리실 보건관리자², 경남정보대학 시간강사³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Son, Bong Hee¹ · Kim, Young MI² · Jun, In Gyeong³

¹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eoje College,

²Health Care Provider, Korea Southern Power Co. Ltd, Busan Combined Cycle Power Plant, Busan, Korea, Health Care Unit,

³Part-time Lecture,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ursing students' job-esteem.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 to 30, 2011 using questionnaires. The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a college in Kyungn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descriptive statistic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significantly factor which is a variable predicting best job-esteem of college nursing students by ability and opportunity to getting accounting for 13.4% ($\beta=.277$) of the prediction, followed by work conditions, lifestyles, and sense of honor that accounted for 27.6%.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nursing educational program and curriculum development should give nursing students a variety of experience for their career.

Key Words: Job satisfaction, Social values, Personal satisfac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고학력자의 취업난으로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현상과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한 다양한 재교육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간호학과는 높은 취업률로 재입학 현상에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면서 재취업의 중심에 있다. 간호교육은 임상실습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진행되고 간호사로 일하게 되는 임상현장에서는 다양한 환자와 인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생명과 건강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엄격한 행동 규범 등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Yang,

2001)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외적인 통제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신규간호사의 개성이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간호사의 사회화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스트레스와 소진 및 이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Kim & Park, 2002). 또한 불규칙한 교대시간, 무분별한 의욕, 과다한 업무, 의견수렴 창구 부재, 낮은 급여,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더불어 역할과 자기정체성 부재, 무력감, 상대적 비하감과 전문직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Lee & Kim, 2008), 대학에서의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실제수행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직을 고려하거나(Han, Sohn, & Kim, 2009) 전문직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

주요어: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Youngmi, Korea Southern Power Co., Ltd, Busan Combined Cycle Power Plant, 759-1 Gamcheon 1-dong, Saha-gu, Busan, Korea. Tel: 82-70-7713-2035, Fax: 82-70-7713-2188, E-mail: anfidtn@hanmail.net

투고일 2011년 7월 1일 / 심사회의일 2011년 7월 7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4일

고 중도에 포기하는(Kwon & Yeun, 2007)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간호학이 인기 학문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간호학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Lee, 2011)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 평가 또는 기대 정도 즉 직업존중감에 대한 개념을 교육과정에서부터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직업존중감은 자아존중감의 개념에서 유래되었고, 주로 산업심리학과 조직행동분야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개념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또는 장래의 직업에 대한 여러 속성의 가치평가 및 기대정도를 말한다(Ko & Chun, 2003).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결정한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는가에 대한 수준과 개인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사람들에 의한 평가 정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학교의 사회적 인식과 명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더 높다고 한다(Ha, 1999). 또한 전공만족은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공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Lee, 2011; Kwon & Yeun, 2007).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는 임상중심의 실습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을 접할 수 있는 실습과정과 사회, 교육, 심리학적 관점에서 직업인성과 진로선택, 성격유형과 정치나 NGO 활동을 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과정 개발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분야의 다양한 진로선택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Lee & Kim, 2008 ; Kwon & Yeun, 2007).

간호학생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기주체성 확립에 대한 연구는 간호전문직관이나 전공만족도, 직업인성에 관한 연구(Lee, 2011; Han, Kim, & Yun, 2008; Kim & Kim, 2005)들이 진행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진로가 병원임상 중심에서 다양한 현장으로 변화를 고려하고 있고 해외취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간호학생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기존중감 개념이 포함된 직업존중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다양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전문간호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직에 대한 학생스스로의 가치관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Lee, 2011), 장래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의 가치 평가와 기대정도를 파악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주체성 확립을 돕고 다양한

직업적 이해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사의 역할과 자기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과 직업관,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남 지역 소재의 간호대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수업시간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응답하도록 시간을 주어 수거하였다.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 것을 제외한 총 209부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직업존중감

작업존중감은 “자기 직업에 대하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 평가 또는 기대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Park (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존중감 도구를 이용하였다. 직업존중감은 총 25개 문항으로 긍정적 가치 12문항, 상대적 효익 5문항, 부정적 대우 5문항, 사회적 평판 3문항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 직업관

직업관이란 “직업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 또는 지위에 대한 가치관”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Lew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총 30개 문항으로 내적, 외적 영역의 2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내적 영역에는 성취감(2), 이타성(2), 창의성(2), 심미성(2), 지적자극(2), 경영관리(2), 외적 영역에는 협동성(2), 경제적 보수(2), 독립성(2), 명예성(2), 안정성(2), 감독과의 관계(2), 환경조건(2), 다양성(2), 생활방식(2)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관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였다.

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Park (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과과정 만족 4문항과 능력발휘 및 취업기회 만족 2문항으로 2개 하위 영역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평균차이는 t-test, ANOVA로 검증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편의표본 추출방법으로 일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연구대상자가 전공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 미처 적응이 안 된 1학년을 포함하는 것이 무리였고 3학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성적, 간호과 선택을 누가했는지, 간호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 종교, 소득, 고등학교 계열, 현재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졸업 후 간호사로 진로 선택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년 구성은 1학년이 44.5%로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고, 2학년 36.8%, 3학년 18.7%를 차지하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적이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간호학과를 자신이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모가 선택(17.7%)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취업이 48.8%, 전문직이라서가 29.2%, 자아실현이 18.2%의 순이었다. 고등학교 전공이 문과출신이 58.9%였으며, 이과는 37.7%였으며, 가정소득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6%였다. 종교는 56.9%가 없었으며, 현재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51.2%, 보통이 42.1%로 나타났다. 졸업 후 간호사로 진출여부에 대해서는 88.5%가 간호사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보았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직업존중감 평균은 91.34 ± 8.84 (평균평점 3.65 ± 0.35)점이었고 하부영역인 긍정적 가치 49.76 ± 6.10 (평균평점 4.14 ± 0.50), 상대적 효익 16.65 ± 2.76 (평균평점 3.33 ± 0.55), 부정적 대우 12.12 ± 3.84 (평균평점 2.42 ± 0.76), 사회적 평판 12.81 ± 1.75 (평균평점 4.27 ± 0.58)점이었다. 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Year	1st year	93 (44.5)
	2nd year	77 (36.8)
	3rd year	39 (18.7)
Academic achievement	Good	19 (9.1)
	Average	138 (66.9)
	Poor	52 (24.9)
Who selected your major?	Myself	167 (79.9)
	Parents	37 (17.7)
	Others [†]	5 (2.4)
Reasons for selecting your major?	Professional	61 (29.2)
	Employment	102 (48.8)
	Self-realization	38 (18.2)
	Others	8 (3.8)
Types of high school	Sciences	79 (37.7)
	Liberal arts	123 (58.9)
	Commerce	7 (3.3)
Income	High	9 (4.3)
	Average	156 (74.6)
	Low	44 (21.1)
Religion	No	119 (56.9)
	Yes	90 (43.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07 (51.2)
	Average	88 (42.1)
	Dissatisfied	14 (6.7)
Intent to work as a nurse after graduation?	Yes	185 (88.5)
	No	24 (11.5)

[†]Teacher, brother and sister.

업관 평균은 105.02 ± 9.89 (평균평점 3.50 ± 0.60)였으며, 하부영역별 점수는 내적요인에서는 성취감 평균이 8.66 ± 1.20 (평균평점 4.33 ± 0.6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지적자극으로 6.98 ± 1.29 (평균평점 3.48 ± 0.64)점이었고 심미감이 6.21 ± 1.20 (평균평점 3.10 ± 0.6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적요인에서는 협동심 평균이 7.92 ± 1.15 (평균평점 3.95 ± 0.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안정성 7.71 ± 1.19 (평균평점 3.53 ± 0.60)점이었고 경제보수가 5.84 ± 1.29 (평균평점 2.91 ± 0.6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평균은 20.15 ± 3.28 (평균평점 3.35 ± 0.5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의 학과과정 만족은 12.81 ± 2.44 (평균평점 3.20 ± 0.60), 능력발휘 및 취업기회만족 $7.34 \pm$

1.39 (평균평점 3.66 ± 0.69)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직업존중감에서는 긍정적 가치 영역에서 학년($F=7.16, p=.001$), 학과 만족도($F=7.55, p=.001$), 졸업 후 진로($t=3.12, p=.002$)가 부정적 대우 영역에서 학년($F=4.83, p=.009$), 학과 만족($F=4.34, p=.014$), 사회적 평판영역에서는 학년($F=4.97, p=.008$)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직업관에서는 내적요인의 창의성영역에서 학과만족도($F=3.81, p=.024$)와 졸업 후 진로($F=2.18, p=.03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지적자극에서 학년($F=3.52, p=.032$)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적요인에서는 경제적 보수영역에서 학년($F=3.24, p=.041$)과 학과 선택($F=5.24, p=.006$), 학과 선택동기($F=4.51, p=.004$)가 명예성 영역에서 학과 선택동기($F=3.64, p=.014$)와 학과 만족도($F=4.46, p=.013$)가, 생활방식 영역에서 학년($F=5.14, p=.007$), 학과 만족도($F=3.85, p=.023$), 졸업 후 진로($t=2.87, p=.00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전공만족도에서는 학과과정만족영역에서 학과 만족도($F=9.96, p<.001$)가 능력발휘 및 취업기회 만족($F=7.12,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5) (Tables 3~5에서는 유의하게 나온 변수만 제시됨).

4.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과 직업관,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과 직업관의 관계에서는 성취감($r=.241, p<.001$), 이타심($r=.257, p<.001$), 창의성($r=.286, p<.001$), 지적자극($r=.178, p=.010$), 경영관리($r=.208, p=.002$), 협동심($r=.203, p=.003$), 명예심($r=.305, p<.001$), 환경조건($r=.328, p<.001$), 다양성($r=.203, p=.003$), 생활방식($r=.330, p<.001$)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과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는 학과과정만족($r=.246, p<.001$), 능력발휘 및 취업기회만족($r=.367, p<.001$)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2. Job-esteem,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Variables (item)	M±SD	Item M±SD	Possible range	Actual range
Work values (30)	105.02±9.89	3.50±0.32	30~150	66~142
Internal factor				
Accomplishment (2)	8.66±1.20	4.33±0.60	2~10	4~10
Altruism (2)	6.92±1.30	3.45±0.65	2~10	3~10
Creativity (2)	7.00±1.31	3.49±0.65	2~10	4~10
Art Instinct (2)	6.21±1.20	3.10±0.60	2~10	3~10
Intellectual stimulus (2)	6.98±1.29	3.48±0.64	2~10	4~10
Business management (2)	6.67±1.28	3.33±0.64	2~10	3~10
External factor				
Cooperation (2)	7.92±1.15	3.95±0.57	2~10	4~10
Economic compensation (2)	5.84±1.29	2.91±0.64	2~10	2~10
Independent (2)	6.16±1.23	3.07±0.61	2~10	2~10
Ambition (2)	7.07±1.20	3.53±0.60	2~10	4~10
Stability (2)	7.71±1.19	3.85±0.59	2~10	4~10
Relation director (2)	6.10±1.24	3.04±0.62	2~10	2~10
Environmental conditions (2)	6.75±1.12	3.37±0.56	2~10	3~10
Diversification (2)	7.60±1.21	3.80±0.60	2~10	4~10
Lifestyle (2)	7.45±1.36	3.72±0.68	2~10	3~10
Job-esteem (25)	91.34±8.84	3.65±0.35	25~125	71~124
Positive value (12)	49.76±6.10	4.14±0.50	12~60	31~60
Relative benefit (5)	16.65±2.76	3.33±0.55	5~25	7~25
Negative treatment (5)	12.12±3.84	2.42±0.76	5~25	5~25
Social reputation (3)	12.81±1.75	4.27±0.58	3~15	8~15
Major satisfaction (6)	20.15±3.28	3.35±0.54	6~30	12~30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4)	12.81±2.44	3.20±0.60	4~24	6~20
Ability and opportunity to getting (2)	7.34±1.39	3.66±0.69	2~10	3~10

Table 3. Job-este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item)		Positive value		Relative benefit		Negative treatment		Social reput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Year	1st year ^a	49.09±6.03	7.16	16.41±2.71	2.24	12.78±4.13	4.83	12.48±1.74	4.97
	2nd year ^b	51.66±5.64	(.001)	17.17±2.65	(.108)	11.06±3.17	(.009)	13.30±1.75	(.008)
	3rd year ^c	47.59±6.24	b > a, c	16.21±2.97		12.64±3.95	a > b	12.64±1.58	a < b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d	51.30±5.80	7.55	17.05±2.62	2.31	11.91±4.19	4.34	13.05±1.77	2.19
	Average ^b	48.02±6.13	(.001)	16.26±2.79	(.102)	11.93±3.23	(.014)	12.52±1.70	(.114)
	Dissatisfied ^c	48.06±5.43	a > b	16.07±3.29		15.00±3.55	a, b < c	12.86±1.65	
Intent to work as a nurse after graduation?	Yes	50.22±5.88	3.12	16.69±2.87	0.59	12.22±3.89	0.96	12.86±1.74	1.05
	No	46.17±6.74	(.002)	16.33±1.63	(.551)	11.42±3.40	(.338)	12.46±1.81	(.292)

5.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일반적 특성의 학년, 학과선택여부, 학과선택동기, 학과 만족도, 졸업 후 진로는 더미 처리하여 투입하였고, 직업관과 전공

만족도 하부영역의 모든 변수들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 분석 가정을 만족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 값은 2.028로 오차항 간의 자기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차 한계범위(Tolerance)는 .83~.92로 0.1 이상이었

Table 4. Work Valu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Internal factor												
	1	2	3	4	5	6	7	8	9	post-hoc			
Year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t or F (p)	t or F (p)	t or F (p)
1st year	8.56±1.22	7.08±1.13	6.97±1.23	6.09±1.29	6.73±1.12	6.58±1.31	6.73±1.06	6.74±1.06	6.78±1.15	6.75±1.16	3.52 (.032)	0.44 (.640)	0.44 (.640)
2nd year	8.70±1.26	6.84±1.40	6.96±1.37	6.36±1.14	7.09±1.39	6.69±1.29	7.09±1.37	6.69±1.18	7.09±1.39	6.69±1.29	3.52 (.032)	0.44 (.640)	0.44 (.640)
3rd year	8.82±1.02	6.69±1.47	7.13±1.39	6.21±1.08	7.33±1.40	6.82±1.21	7.33±1.40	6.90±1.18	7.33±1.40	6.82±1.21	3.52 (.032)	0.44 (.640)	0.44 (.64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8.66±1.36	7.16±1.35	3.81	7.09±1.35	0.76	6.19±1.20	2.03	7.09±1.37	2.10	2.10 (.125)	2.10 (.125)	2.10 (.125)
Average ^b	8.68±1.05	6.66±1.23	6.86±1.28	6.33±1.18	6.93±1.19	6.63±1.19	6.93±1.19	6.88±.99	6.93±1.19	6.63±1.19	2.10 (.125)	2.10 (.125)	2.10 (.125)
Dissatisfied ^c	8.50±.70	6.71±1.13	7.07±1.14	5.64±1.21	6.36±1.21	6.00±1.35	6.36±1.21	6.88±.99	6.36±1.21	6.00±1.35	2.10 (.125)	2.10 (.125)	2.10 (.125)
Intent to work as a nurse after graduation?	Yes	8.68±1.19	6.99±1.29	2.18	7.02±1.29	0.64	6.24±1.19	1.09	6.99±1.33	0.40	0.40 (.686)	0.40 (.686)	0.40 (.686)
No	8.50±1.28	6.38±1.27	6.83±1.46	5.96±1.26	6.88±.99	6.42±1.28	6.88±.99	6.88±.99	6.42±1.28	6.42±1.28	0.40 (.686)	0.40 (.686)	0.40 (.686)

1=Accomplishment; 2=Altruism; 3=Creativity; 4=Art instinct; 5=Intellectual stimulus; 6=Business management.

Variables	External factor												
	1	2	3	4	5	6	7	8	9	post-hoc			
Year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t or F (p)	t or F (p)	t or F (p)
1st year ^a	7.82±1.08	1.02	5.60±1.27	3.24	6.00±1.33	1.42	6.99±1.26	0.68	7.56±1.10	1.45	6.01±1.28	0.53 (.587)	0.53 (.587)
2nd year ^b	7.94±1.22	(.364)	5.95±1.34	(.041)	6.31±1.12	(.242)	7.08±1.13	(.508)	7.87±1.23	(.236)	6.21±1.18	0.53 (.587)	0.53 (.587)
3rd year ^c	8.13±1.15	6.18±1.14	6.23±1.18	7.26±1.18	6.23±1.18	7.26±1.18	6.23±1.18	7.26±1.18	6.23±1.18	6.23±1.18	0.53 (.587)	0.53 (.587)	0.53 (.587)
Who selected your major?	Myself ^a	7.96±1.17	0.76	5.83±1.22	5.24	6.23±1.26	2.94	7.14±1.20	1.49	7.72±1.16	0.69	6.14±1.25	2.63 (.074)
Parents ^b	7.81±1.07	(.466)	5.65±1.35	(.006)	5.76±1.03	(.055)	6.78±1.13	(.226)	7.57±1.32	(.501)	5.78±1.15	2.63 (.074)	2.63 (.074)
Others ^c	7.40±0.89	7.60±2.07	a > b > c	6.80±1.30	6.80±1.30	6.80±1.30	6.80±1.30	6.80±1.30	6.80±1.30	6.80±1.30	2.63 (.074)	2.63 (.074)	2.63 (.074)
Reasons for selecting your major?	Professional ^a	7.89±1.08	0.61	5.93±1.25	4.51	5.98±1.23	0.89	7.21±1.17	3.64	7.84±1.20	0.45	6.05±1.33	0.34 (.792)
Employment ^b	7.91±1.12	(.607)	6.05±1.29	(.004)	6.28±1.23	(.443)	6.83±1.18	(.014)	7.69±1.21	(.712)	6.05±1.15	0.34 (.792)	0.34 (.792)
Self-realization ^c	8.08±1.32	5.24±1.21	b > c	6.16±1.30	7.53±1.17	b < c	7.55±1.22	6.26±1.36	7.08±0.91	7.08±0.91	0.34 (.792)	0.34 (.792)	0.34 (.792)
Others	7.50±1.19	5.25±1.16	5.88±0.83	6.88±1.12	7.75±0.70	6.25±1.03	6.25±1.03	6.25±1.03	6.25±1.03	6.25±1.03	0.34 (.792)	0.34 (.792)	0.34 (.792)

1=Cooperation; 2=Economic compensation; 3=Independent; 4=Ambition; 5=Stability; 6=Relation director; 7=Environmental conditions; 8=Diversification; 9=Lifestyle.

Table 5. Major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item)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Ability and opportunity to getting	
		M±SD	t or F (p)	M±SD	t or F (p)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13.48±2.54	9.96 (<.001) a>b>c	7.68±1.39	7.12 (<.001) a>b
	Average ^b	12.26±2.00		7.01±1.34	
	Dissatisfied ^c	11.21±2.75		6.79±1.12	

Table 6. Correlation of related Job-esteem,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Variables	Categories	Job-esteem
Work values	Accomplishment	.241 (<.001)
	Altruism	.257 (<.001)
	Creativity	.286 (<.001)
	Art instinct	.060 (.391)
	Intellectual stimulus	.178 (.010)
	Business management	.208 (.002)
	Cooperation	.203 (.003)
	Economic compensation	.083 (.230)
	Independent	.047 (.496)
	Ambition	.305 (<.001)
	Stability	.115 (.099)
	Relation director	.088 (.205)
	Environmental conditions	.328 (<.001)
	Diversification	.203 (.003)
	Lifestyle	.330 (<.001)
Job-esteem	Positive value	.842 (<.001)
	Relative benefit	.568 (<.001)
	Negative treatment	.241 (<.001)
	Social reputation	.690 (<.001)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246 (<.001)
	Ability and opportunity to getting	.367 (<.001)

며, 상승변량(VIF)은 1.074~1.200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모형의 선형성도 만족하여 회귀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의 전공능력 발휘 및 취업기회 만족($\beta=.277$)이었으며 직업관의 환경조건($\beta=.236$)과 생활방식($\beta=.174$), 명예심($\beta=.130$)을 포함한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 설명력은 27.6%($F=19.44$ $p<.001$)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존중감에서 출발하여 인간을 간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Kwon과 Yeun (2007)은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하게 정립될 때 간호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간호대학생들이 취업 후 임상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간호전문직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의 장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기대나 지각을 알아보는 것은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신장하고 역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직업존중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의 능력발휘 및 취업기회만족이었고 직업관의 환경조건과 생활방식, 명예심을 포함하여 27.6%의 설명력으로 확인되었다. 능력발휘 및 취업기회만족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설명력은 낮지만 현재의 간호학과를 선호하는 세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학과를 선택하였고 현재 학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으며 졸업 후 간호사로 취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최근 한 조사(The Kyunghyang Shinmun, 2009)에 의하면 대학생의 전공 선택 이유가 대부분 성적에 따라 전공을 가지게 되었으며 부모나 선생님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였고 다시 전공을 바꾸고 싶은 학생이 과반수를 넘기는 결과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결국 간호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보장된 학과를 자신이 선택함으로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이 타 전공학생에 비해 적기 때문에 교과과정 내에서 인문 사회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간호(caring)’의 본질적인 특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생 때의 다양한 경험의 축적은 사회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혼란을 덜 경험하거나 경험하더라도 좀 더 짧게 경험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ee (2005)는 전공만족은 교육 행정적 측면에서 전공내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타전공과의 수

Table 7. The Predictors of Job-esteem

Variables	β	t (p)	R ²	Adjusted R ²	F	p
Ability and opportunity to getting	.277	4.48 (<.001)	.134	.130	35.15	<.001
Environmental conditions	.236	3.82 (<.001)	.221	.213	29.18	<.001
Lifestyle	.174	2.68 (.008)	.262	.251	24.26	<.001
Altruism	.130	1.98 (.048)	.276	.262	19.44	<.001

준차이를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높은 전공 만족도를 가진 간호학과이지만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전공 내의 취약점이 건강하게 드러나고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학생 실습과 교과과정의 경험들이 좀 더 질적인 평가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병원 외의 다양한 지역사회간호사 영역들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이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자료들이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각의 현장에서 어떤 고민과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고 전문직업인으로 정착하게 되는 간호사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와 존중의 체험이 교과과정에 적용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다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관의 환경조건과 생활방식, 명예심으로 Lew (1999)의 연구에서 여성의 직업관이 생계유지보다는 자아실현을 통해 성취감과 명예심을 얻는 쪽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고, Lee (2009)의 항공운항서비스 전공학생들의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전공만족과 취업 후 역할 수행자신감이라는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최근 간호사들의 취업분야가 법조계, 교수, 교대근무가 없는 현장인 학교, 산업장, 공무원 등 기존의 병원중심의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이미지가 변화되고 있고 Lee (2011)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확인된 사회참여라는 요인은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사들이 정치나 NGO활동에 관심이 없는 경향이 변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들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해서 병원외의 간호사 역할에 대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실습 과정에 좀 더 깊이 있게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Pfaff (1987)는 간호에 대한 기대와 가치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빠른 이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사회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간호사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작업환경이나 임금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간호조직에서 잘 훈련된 간호사들의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급여와 복지등과 관련된 작업 환경(Working Condition)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소진(Burnout)에 대한 대처 전략들을 간호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직업관의 하부영역인 환경조건과 생활방식, 명예심 요인을 고려한 교과과정의 변화는 특히 1,2학년 시기에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간호를 수행하는 모습이 확실히 이지 않고 역동적인 인간의 다양한 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체 및 통합 의학분야의 다양한 시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이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상과 같은 다양한 이완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직업존중감은 평균 평점 3.65점으로 각 하위 영역에서는 사회적 평판(4.27)이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대우 2.4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rk (2011)의 연구에서 관광 관련 전공자들이 직업존중감에서 긍정적 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를 보였고, Lee (2009)의 저가항공승무원의 직업존중감 하부 영역 중 사회적 평판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관광전공자 보다는 취업률이 높고 이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간호대학생의 현재 전공에 대한 만족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만한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학과 선택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측면에서 항공승무원과는 분명하게 작업환경의 차이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판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은 항공 관련 학과 학생들과의 차이를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자신감이 졸업 후 현장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면 좀 더 명확하게 간호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각자 혹은 집단, 조직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처전략들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생은 실습으로 미래의 직장에 대한 기본적인 현장을 학습하고 기초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학과 과정에서 이론적 지식을 확대하면서 전문직업인으로 양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학생들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특히, 간호사들의 다양한 현장경험의 본질을 파악한 질적 연구를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역할자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게 되는지 현실감 있게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대처전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인으로 역할정체성을 확립하는지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토론이나 역할극 등 심리 상담학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경험이 간호현장에서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직업관 점수는 평균평점 3.50점이었으며 내적요인에서 성취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창의성이었으며 심미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적요인에서는 협동심이 가장 높았고 명예심, 안정성, 다양성, 생활방식의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w (1999)의 연구에서 일반여대생들의 직업관은 내적 영역에서 성취감과 명예심 점수가, 외적영역에서는 협동심, 안정성, 다양성, 생활방식, 명예심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여대생이 직업을 통해 성취감과 명예심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면 간호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취업중심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지만 간호학을 통해 좀 더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함과 동시에 좀 더 창조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것을 알 수 있었다. Lew (1999)의 연구에서 직업관은 직업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올바른 직업관 확립이 필요하며 Kwon과 Yeun (2007)은 간호전문직관의 개념이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요인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업관의 창의성 영역을 비롯하여 15개 요인은 앞으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연구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추천하는 바이

다. 한편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심미감은 Kim과 Kim 등 (2005)의 간호대학생의 직업인성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중의 하나인 '소극형'이 가진 예술적인 감각을 간호학과 접목하여 발달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간호대학생이 병원 코디네이터나 병원 인테리어와 같은 적성을 고려한 간호의 다양한 분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서는 능력 발휘 및 취업기회만족이 3.66점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광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구결과보다 높았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과 Yeun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전공과 취업이 일치되는 경우 취업의 기회가 만족되면서 취업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Kwon과 Yeun (2007)은 간호전문직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들이지만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인성, 적성에 맞는 간호 분야를 발견하여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간호대학생들은 현재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간호사라는 직업인이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미래에 전문직업인으로 주체성과 전문직 역할확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직업존중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의 능력 발휘 및 취업기회만족이었고, 직업관의 환경조건과 생활방식, 명예심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에 대해 긍정적이며 간호사라는 직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만한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즉 직업존중감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직업에 대한 가치정도와 전공만족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대처전략과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간호사들이 역할들이 재평가되고 그들의 체험 활동들이 교과과정에서 현실감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관,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직업인성 등의 다양한 개념에서 확인되는 요인들을 고려해 간호대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함으로써 전문직 역할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안된 1학년생을 포함하기 보다는 취업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생과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Ha, H. S. (1999).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an, S. S., Kim, M. H., & Yun, E. K.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4(1), 73-79.
- Han, S. S., Sohn, I. S., & Kim, N. E. (2009). New nurse turnover Intention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6), 878-887.
-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DR Korea] (2009, November 17). <http://www.hrdkorea.or.kr>
- Kim, B. H., & Kim, Y. S. (2005). Personality-based career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3), 503-513.
- Kim, J. H., & Park, S. A.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a nurs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staf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8, 97-106.
- Ko, D. W., & Chun, B. G. (2003). The concept and measurement scale of job-esteem: The case of undergraduate majoring tourism studi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6(3), 279-297.
- Kwon, Y. M., & Yeun, E. J.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 Lee, J. H. (2005). *(A) Study on the major satisfaction level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majors depending on their maj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g In University, Yongin.
- Lee, M. S. (2009). Job-esteem of the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aviation operation servic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6), 371-378.
- Lee, S. R. (2011).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Lee, Y. J., & Kim, K. B. (2008). Experiences of nurse turnov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2), 248-257.
- Lew, I. J. (1999). *(A) Study on the job valuation and job preference of the youth*. Unpublished ma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The Kyunghyang Shinmun. (2009, November 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61056161&code=940401
- Park, S. M. (2011). *The effects of major-related job-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 Pfaff, J. (1987).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registered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Nursing Management*, 18(8), 51-55.
- Yang, S. H.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3), 376-390.